



일본 금융계의 대학과 노년학(Gerontology) 공동연구 확대

이상우 수석연구원

연구

최근 일본은 고령친화 금융정책에 따라 금융업계와 대학이 노년학을 공동 연구하여 금융실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. 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공동으로 관련 학회를 설립하거나 치매환자 의사결정 연구, 건강 나이 연구, 고령친화 금융서비스를 연구하고, 그 결과를 사내 고령자 대응 체계에 활용하고 있음. 또한 보험회사들도 치매 및 당뇨병 등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모델 연구, 고객의 건강리스크 예측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향후 고객의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과 보험료 산출 등의 보험실무에 활용할 예정임

- 일본은 고령 인구나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고령층과 치매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
 - 일본은 고령자 수가 2030년 3,716만 명(고령인구비율 31.2%)으로 증가하고, 치매환자 수도 2040년 약 953만 명(고령자 치매 발병률 25.4%)으로 증가할 전망이다¹⁾
 - 이에 따라 가계금융자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68%(1,265조 엔)로 증가하고, 치매환자가 보유한 가계금융자산도 2030년 200조 엔을 상회할 전망이다²⁾
-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층 금융자산이 불법금융 및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빈곤한 노후생활을 보내지 않도록 고령자의 금융자산이 안전하게 투자되어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과제로 상정한 기본대책을 발표함³⁾
 - 이를 위해 일본 금융청은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층의 금융활동을 보호하고, 고령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노년학(Financial Gerontology)을 고려한 고령친화적 대응체계 마련을 권장하는 정책 방향을 2019년 6월에 발표하였음⁴⁾

1) 内閣府(2018), 高齢社會白書, p. 4
 2) 第一生命經濟研究所(2018), 認知症患者の金融資産未来, p. 3
 3) 内閣府, 高齢者社會對策大綱(2018. 2. 16 閣議決定)
 4) 金融庁(2019. 6), 金融審議會 市場ワーキング・グループ報告書

■ 일본의 금융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금융정책과 고령층 고객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들과 노년학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, 최근에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

- 노년학(Gerontology)은 신체 노화와 심리 변화를 연구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적인 학술분야로 정의됨⁵⁾
 - 196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학문으로, 생물학, 의학, 공학, 심리학, 사회학, 경제학, 복지학 등의 학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매우 광범위한 형태로 연구범위가 발전해 옴
- 금융노년학(Financial Gerontology)은 고령자의 경제활동, 자산선택 등 장수·노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분야로서 미국에서 1980년대 새로운 연구분야로 발전함⁶⁾

■ 일본의 은행·증권업계는 대학들과 노년학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, 연구결과를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임(〈표 1〉 참조)

- 노무라Hodings 등은 게이오대학교와 2019년 4월에 일본금융노년학협회를 공동으로 설립함
 - 동 협회는 은행, 보험사를 포함한 14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, 종합연구기능,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의 고령자 이해 연수 및 지식보급 사업, 고령자 대응 전문직 자격시험 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⁷⁾
- 미즈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문부과학성, 교토부립의과대학 등과 제휴하여 치매환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, 그 결과를 직원 교육, 세미나 개최, ‘치매환자 응대 실무 가이드(2017)’ 마련에 활용함⁸⁾

〈표 1〉 은행·증권사의 노년학 공동연구 추진 현황

금융기관	대학	시행 연도	연구주제	활용 예정
노무라Hodings 등	게이오대학	2019	금융노년학회 설립	계몽, 지식산업, 자격시험 등
미즈이스미토모신탁 등	교토부립의과대학 등	2017	치매환자 의사결정	연구 교과, 치매 대응 가이드
미즈미시UFJ신탁 등	동경대학	2019	건강연령 평가	라이프사이클 상품 제안 등
아오조라은행	상지대학	2019	노년학	연수 교과, 판매자료 개발 등

자료: Nikkei News(2019. 9. 17)를 기초로 작성함

- 미즈미시UFJ신탁은행은 동경대학 등과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연령을 측정하는 기술 개발을 2019년 8월부터 시작하고, 그 결과를 고객의 인생설계 제안,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, 치매예방에 활용할 계획임⁹⁾

5) Gerontology는 노년학, 가령학, 장수학, 고령학 등으로 번역(ニッセイ基礎研究所(2010), ジェロントロジーの役割と期待)
 6) 金融庁(2019. 6), 金融審議会 市場ワーキング・グループ報告書; 宮内康二(2005), ジェロントロジー 참조
 7) <http://www.jfgi.jp/>
 8) 三井住友信託銀行(2017), 信託銀行の機能を生かした超高齢社会問題への対応
 9) 三菱 UFJ 信託銀行株式会社. News Release(2019. 8. 28)

- 아오조라은행은 상지대학교 공동으로 2019년에 고령자에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연구라는 과제를 추진하고, 노인 간접체험을 통해 직원 연수과목 개발, 팸플릿 개발, 고령층 만족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임¹⁰⁾
- 또한, 보험회사도 대학과 치매와 질병예방 등을 공동 연구하여 고객의 질병예방 및 리스크 관리 등의 보험실무에 활용할 예정임(〈표 2〉 참조)
 - 일본생명 등은 뇌신경 연구로 저명한 순천당대학교 공동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얼굴 표정으로 치매상태와 진행 정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고객의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, 지급심사 등에 활용할 예정임¹¹⁾
 - 미즈이스미토모화재 등은 동경대학교 공동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업고객 임직원의 건강리스크 예측 AI 수치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가서비스 제공과 기업성 소득보상보험 보험료 산출에 활용할 예정임¹²⁾
 -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히로사카이대학교 공동으로 건강진단으로부터 질병리스크를 산출하는 질병예방모형을 개발하여 2019년에 보험료 할인의 근거, 계약자 질병리스크 평가 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임¹³⁾
 - 다이치(第一)생명 등은 대학 등과 공동으로 당뇨병 예측모형을 구축한 연구결과를 미국 Nature지(2019. 8. 14)에 게재하고, 향후 보험상품 할인과 당뇨병 발병 리스크가 있는 고객의 부가서비스로 활용할 예정임¹⁴⁾

〈표 2〉 보험회사의 노년학 공동연구 추진 현황

금융기관	대학	시행 연도	연구주제	활용 예정
일본생명, 미즈미시UFJ신탁	순천당대학	2019	치매 조기발견	고객 치매예방, 지급심사 등
미즈이스미토모화재, 닛세이손해보험 등	동경대학	2019	건강리스크 예측 AI 제공	기업 부가 서비스, 보험료 산출 등
메이지야스다생명	히로사카이대학, 히로시마대학	2018	질병예측모델 제공	고객 질병예방, 보험료 할인 등
다이이치생명, IBM	후지타보건위생대학	2018	당뇨병환자 경과예측모델	고객 부가서비스, 보험료 할인 등

자료: Nikkei News(2019. 9. 17)를 기초로 작성함

- 일본 금융업계는 정부의 고령친화 금융정책과 고령친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, 판매 기법, 판매 채널, 리스크 관리, 보험료 산출 등의 실무에 대한 사내 고령자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향후 대학들과의 산·학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**kiri**

10) あおぞら銀行 News Release(2019. 7. 10)
 11)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MZO47174940Q9A710C1TJM000/>
 12)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News Release(2019. 3. 11)
 13) 明治安田生命 News Release(2012. 12. 7)
 14) 第一生命 News Release(2019. 9. 13)